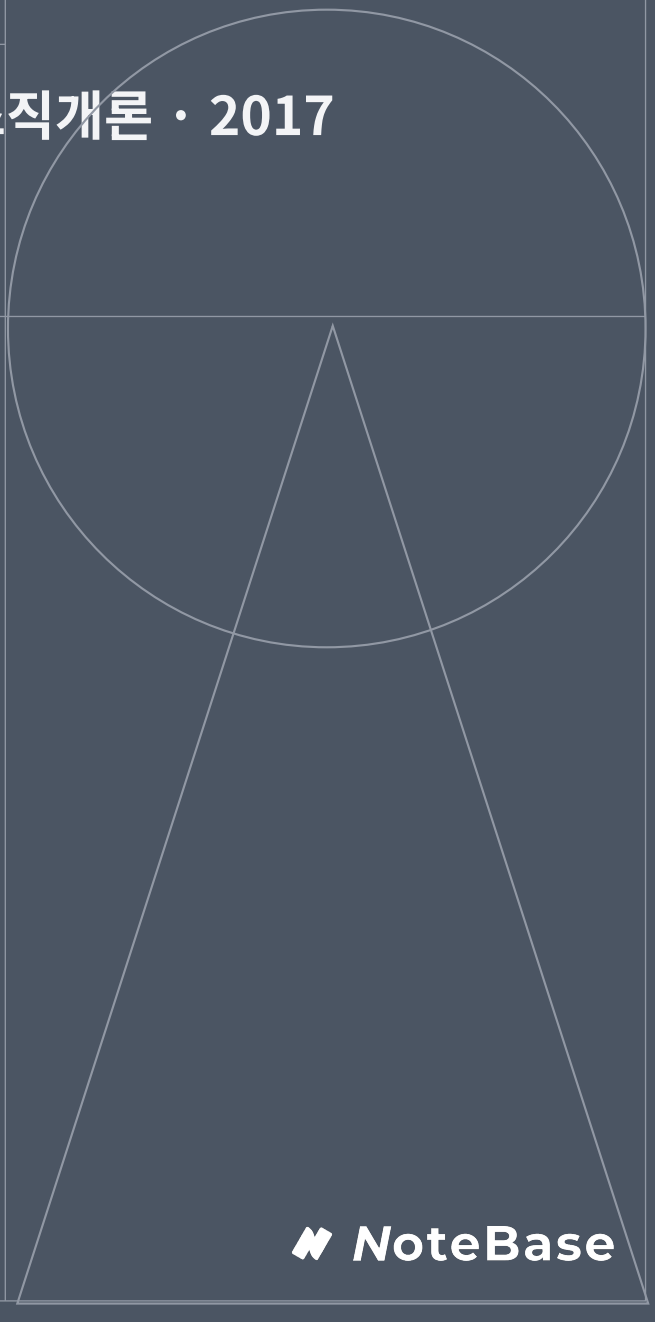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문 1. 다음은 KDC 제6판 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분류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8 특정주제의 신문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

① 기독교신문 078.23
② 교육신문 078.37
③ 서예신문 078.65
④ 농업신문 078.52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서예의 주제번호는 **640**이므로 서예신문은 **078.64**로 분류한다. 078.65는 서예가 아니라 회화·도화·디자인의 주제번호 650을 적용한 분류이다.

선지별 해설

제시된 078의 주기에 따라 특정주제의 신문은 078 뒤에 해당 주제의 분류기호를 붙인다. 이 문항에서는 주제번호 끝의 0을 생략하여 230은 23, 370은 37, 640은 64, 520은 52로 붙인다.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는 별법이며, 제시된 선지들은 078 아래에 주제를 세분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① O: 기독교의 주제번호는 **230**이다. 078 뒤에 23을 붙이면 기독교신문의 분류기호는 078.23이 된다.

② O: 교육학의 주제번호는 **370**이다. 교육을 주제로 하는 신문은 078 뒤에 37을 붙여 078.37로 분류한다.

③ X: 서예의 주제번호는 **640**이므로 서예신문의 분류기호는 **078.64**이다. 선지의 078.65는 회화·도화·디자인의 주제번호 650을 적용한 것이므로 서예신문의 분류기호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O: 농업·농학의 주제번호는 **520**이다. 농업을 주제로 하는 신문은 078 뒤에 52를 붙여 078.52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2. 도서기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각 도서를 개별화할 목적으로 부가하는 기호이며, 일반적으로 저자기호와 저작기호로 구성된다.

② 수입순 기호법은 수입순 또는 등록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국내에서는 특히 서양서를 대상으로 많이 활용된다.

③ 연대순 기호법은 기호부여가 간편하고 배가작업이 편리하지만, 동일주제의 최신자료를 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저자기호법은 학문 및 지식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고, 도서기호법 중 국내 도서관에서의 채택률이 가장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를 가진 도서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덧붙이는 기호이다. 일반적으로 저자를 나타내는 저자기호와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하는 저작기호로 구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분류기호가 도서의 주제를 나타낸다면,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개별 도서와 배열 위치를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저자기호로 저자를 나타내고, 저작기호로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한다. 따라서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저자나 저작이 다르면 도서기호를 달리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② X: 입수순 또는 등록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국내에서 특히 서양서에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이 부정확하다. 국내 서양서 정리에는 커터-샌본 저자기호표 등 **저자기호법**이 널리 사용되며, 수입순 기호법은 동양서에도 적용된다. 수입순의 '수입'은 외국 도서의 수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③ X: 연대순 기호법은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출판연도를 기준으로 배열**하므로, 같은 주제의 최신자료를 한데 모아 살펴보기 쉽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의 2020년·2023년·2025년 자료가 있다면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최신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 반면 같은 저자의 저작은 발행연도가 다르면 서로 떨어질 수 있다.

④ X: 저자기호법은 저자명을 기호화하여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같은 저자의 저작을 모으는** 방식으로, 국내 도서관에서 널리 채택된다. 그러나 학문과 지식의 발전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 좋은 방식은 **연대순 기호법**이다. 저자명순 배열은 출판연도순 배열과 다르므로 학문의 발전순서를 직접 보여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3. 다음은 DDC 제23판의 분류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밑줄 친 ㉠과 ㉡에 해당하는 보조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Child psychology for parents
→ 155.4(child psychology) + ㉠-085(parents) = 155.4085
French folk music
→ 781.62(folk music) + ㉡-41(French) = 781.6241

① ㉠: Table 1, ㉡: Table 5
② ㉠: Table 1, ㉡: Table 6
③ ㉠: Table 5, ㉡: Table 5
④ ㉠: Table 5, ㉡: Table 6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부모를 위한'이라는 이용 대상은 **Table 1(표준구분표)**의 -085로 나타낸다. 프랑스 민속음악의 'French'는 언어가 아니라 민족·국민 집단을 가리키므로 **Table 5(민족·국민 집단표)**의 -41을 사용한다.

대응 관계 해설

㉠ Table 1: 표준구분표는 주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나 관점, 대상 집단 등을 나타낸다. -085는 친족을 나타내며 부모를 포함한다. 'Child psychology for parents'는 아동심리학을 **부모를 위한 자료**로 다룬 것이므로, 아동심리학의 분류기호 155.4 뒤에 Table 1의 기호 085를 붙여 155.4085로 구성한다. 부모라는 특성은 민족·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므로 Table 5를 적용하지 않는다.

㉡ Table 5: 민족·국민 집단표는 특정 민족이나 국민 집단을 나타내며, -41은 프랑스인을 뜻한다. 'French folk music'에서 French는 **민속음악이 속한 민족·국민 집단**을 나타낸다. 781.621~781.629에서는 기본기호 781.62에 Table 5의 기호를 부가하도록 지시하므로, 41을 붙여 781.6241로 구성한다. Table 6은 언어구분표이므로 프랑스어라는 언어를 나타낼 때의 보조표와 구별해야 한다.

㉠은 Table 1, ㉡은 Table 5로 연결되므로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대한 기술 총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표제는 해당 자료의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기재하되, 표제의 일부분이 ‘두줄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한줄쓰기’로 고쳐 쓴다.

②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기재된 자료에서는 이 종합표제나 대표표제를 본표제로 기재하고, 수록된 각 저작의 표제는 주기한다.

③ 자료의 으뜸정보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취한 책임표시는 각괄호([ ]) 속에 기재하고, 그 자료 이외의 정보원에서 얻은 책임표시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④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포함된 저작자명은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저작자명이 들어 있어도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한다**. 표제 속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본표제는 자료를 식별하는 주된 표제로, 해당 자료에서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따른다. 다만 표제 일부가 두 줄로 나뉘어 있는 '두줄쓰기'는 **한줄쓰기로 고쳐** 기재한다.

② O: 여러 저작을 묶은 자료에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있으면, 자료 전체를 나타내는 그 표제를 본표제로 기재한다. 수록된 **각 저작의 표제는 주기사항**에 적어 전체 자료의 표제와 개별 저작의 표제를 구분한다.

③ O: 책임표시는 정보를 얻은 위치에 따라 기술 방법이 달라진다. **자료 내부의 으뜸정보원 이외 부분**에서 취한 책임표시는 각괄호([ ]) 안에 기재하고, 해당 자료 밖의 정보원에서 얻은 책임표시는 주기사항에 기재한다.

④ X: KCR4에서는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포함된 저작자명도 **책임표시에 다시 기재한다**. 표제는 자료의 이름을 나타내고, 책임표시는 저작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단체와 그 역할을 나타낸다. 따라서 표제 속에 저작자명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책임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NoteBase

문 5.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내용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오디오(audio), 비디오카세트(videocassette)

② 오디오(audio), 컴퓨터디스크(computer disc), 정지화상(still image)

③ 악보(notated music), 텍스트(text), 정지화상(still image)

④ 악보(notated music), 컴퓨터디스크(computer disc)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RDA의 내용유형은 **내용이 표현되는 기본 형식**을 구분한다. 악보·텍스트·정지화상은 각각 기보·문자·정지된 이미지로 내용을 표현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구성 요소별 해설

RDA에서 내용유형은 내용의 표현 형식을, 매체유형은 내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매개 장치의 일반적 유형을, 수록매체유형은 내용이 담긴 저장 매체와 용기의 형식을 구분한다.

오디오(audio): **매체유형**이다.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내용을 이용한다는 구분으로, 그 내용이 말인지 음악인지 등을 나타내는 내용유형과 다르다.

비디오카세트(videocassette): **수록매체유형**이다. 영상 내용 자체의 표현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라는 저장 매체의 형식을 나타낸다.

컴퓨터디스크(computer disc): **수록매체유형**이다. 컴퓨터로 읽는 디스크라는 저장 매체의 형식이며, 디스크에 담긴 내용이 문자나 이미지 중 무엇인지를 뜻하지 않는다.

악보(notated music): 음악을 **기보법으로 표현**한 내용유형이다. 연주된 소리를 듣는 것과 달리, 음표 등으로 기록된 음악을 나타낸다.

텍스트(text): 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내용유형이다. 종이에 인쇄되었는지 디스크에 저장되었는지와 구별하여 내용의 표현 형식을 나타낸다.

정지화상(still image): 사진이나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로 표현된 내용유형이다. 이미지를 담은 저장 매체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표현 형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용유형만으로 묶인 악보·텍스트·정지화상은 ③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DDC 제23판과 KDC 제6판의 지역구분 내용의 일부이다. 해당 기호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호	DDC 제23판(T2)	KDC 제6판(지역구분표)
ㄱ.	-2	Biography	유럽
ㄴ.	-3	Ancient world	아프리카
ㄷ.	-5	Asia	남아메리카
ㄹ.	-7	North America	오세아니아, 양극지방
ㅁ.	-9	Australasia	해양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DDC와 KDC는 같은 숫자라도 나타내는 내용이 다르다. KDC 제6판에서 **오세아니아·양극지방은 -6, 해양은 -8**이므로, 이를 각각 -7과 -9에 연결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DDC 제23판 T2의 -2는 Biography로, 인물의 생애를 다루는 전기 등을 나타낸다. KDC 제6판 지역구분표의 -2는 유럽이다. 같은 -2이지만 **DDC는 전기, KDC는 유럽**을 뜻하므로 두 연결 모두 맞다.

ㄴ. O: DDC 제23판 T2의 -3은 Ancient world, 즉 고대세계이다. KDC 제6판 지역구분표의 -3은 아프리카이므로 두 연결 모두 맞다.

ㄷ. O: DDC 제23판 T2의 -5는 Asia, 즉 아시아이다. KDC 제6판 지역구분표의 -5는 남아메리카이므로 두 연결 모두 맞다.

ㄹ. X: DDC 제23판 T2의 -7을 North America, 즉 북아메리카에 연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KDC 제6판에서 오세아니아·양극지방의 기호는 **-6**이다. KDC의 -7은 **지역구분 일반**이므로 해당 연결을 고쳐야 한다.

ㅁ. X: DDC 제23판 T2의 -9에는 Australasia가 포함되므로 이 연결은 맞다. 그러나 KDC 제6판에서 해양의 기호는 **-8**이므로, 해양을 -9에 연결한 부분은 '-8: 해양'으로 고쳐야 한다.

두 분류표에서 기호와 내용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보기는 ㄱ·ㄴ·ㄷ이며, 이는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은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으로 작성한 데이터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주제명부출표목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 ▼a불전. ▼p화엄경 ▼x해석
(㉡) ▼a한국 ▼x정치
(㉢) ▼a한국방송공사 ▼x역사
(㉣) ▼a베이직(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① ㉠ - 630
② ㉡ - 611
③ ㉢ - 651
④ ㉣ - 61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불전. 화엄경'은 주제로 다루는 경전의 **통일표제**이므로 표시기호 630을 사용한다. 뒤의 '▼x해석'은 일반세목으로, 표목의 유형을 바꾸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주제명부출표목은 자료가 다루는 대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표목이다. 이 문항에서는 ▼a에 기술된 표목이 통일표제·지명·단체명·일반주제명 중 무엇인지 구별해야 한다. ▼x는 표목의 내용을 세분하는 일반세목을 나타낸다.

① O: ㉠의 '불전. 화엄경'은 통일표제를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630**에 해당한다. ▼a에는 통일표제인 '불전'을, ▼p에는 권차표제인 '화엄경'을 기술하고, ▼x의 '해석'은 일반세목으로 덧붙인다.

② X: ㉡의 '한국'은 지명이고 '정치'는 그 지명에 붙는 일반세목이다. 지명 뒤에 주제세목이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651**을 사용한다. 제시된 611은 회의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표시기호이다.

③ X: ㉢의 '한국방송공사'는 단체명이고 '역사'는 그 단체명에 붙는 일반세목이다. 따라서 단체명 주제명부출표목인 **610**을 사용해야 한다. 제시된 651은 지명에 사용하는 표시기호이다.

④ X: ㉣의 '베이직(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은 단체명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타내는 일반주제명이다. 따라서 일반주제명 주제명부출표목인 **650**을 사용해야 한다. 제시된 610은 단체명에 사용하는 표시기호이다.

NoteBase

문 8. 목록의 접근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근점은 서지적 기술사항을 검색하기 위한 요소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목록에서는 표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는 표목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았다.

③ RDA에서 접근점은 특정 저작이나 표현형, 개인, 가족, 단체 등을 나타내는 이름, 용어, 부호 등을 말하며,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한다.

④ 국제목록원칙규범은 서지레코드의 필수 접근점으로 구현형의 본표제, 기술된 개체의 표준번호,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 서지레코드 식별기호 등을 포함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과 서지레코드 식별기호는 **필수 접근점이 아니라 부가 접근점**이다. 구현형의 본표제와 기술된 개체의 표준번호는 필수 접근점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접근점은 이용자가 서지레코드와 그에 연결된 자료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이다. 저자명이나 표제를 검색어로 삼아 자료를 찾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목록에서는 이러한 검색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요소를 표목이라고 불렀다.

② O: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표목 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특정 표목에 하나의 대표 형식을 부여하는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하였다. 동일한 개체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형식은 전거에서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사항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③ O: RDA의 접근점은 특정 저작·표현형·개인·가족·단체 등을 나타내는 이름·용어·부호 등이다. 전거형 접근점은 개체를 나타내기 위해 **표준화한 접근점**이고, 이형 접근점은 같은 개체를 나타내는 **다른 형식의 접근점**이다. 따라서 이름이나 표제의 표현이 달라도 동일한 개체에 접근할 수 있다.

④ X: 국제목록원칙규범 2009의 서지레코드 필수 접근점에는 구현형의 본표제 또는 보충표제, 기술된 개체의 표준번호·식별기호·등록표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과 서지레코드 식별기호는 부가 접근점**으로 분류된다. 부가 접근점은 검색 경로를 추가하거나 검색 결과를 걸러 내는 데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기술된 개체의 식별기호'와 '서지레코드 자체의 식별기호'는 식별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9. KDC 제6판의 별법 또는 양자택일 규정을 적용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법: 368.037 또는 370.23
ㄴ. 정치인의 전기: 340.99 또는 998.34
ㄷ. 법학 서지: 016.36 또는 360.16
ㄹ. 불교신문: 078.22 또는 220.5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법학 서지를 법학 아래에 분류할 때는 서지·목록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26**을 적용하여 **360.26**으로 분류한다. ㄷ의 360.16은 360.26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별법과 양자택일 규정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같은 자료를 서로 다른 위치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각 보기의 두 분류기호가 모두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ㄱ. O: 교육법을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에 분류하면 370.23이 된다. 특수법을 한곳에 모으는 별법을 적용하면 **368 다음에 0을 붙이고 주제구분**하므로, 교육법은 368.037로 분류할 수 있다.

ㄴ. O: 정치인의 전기를 **정치학 주제 아래**에 모으면 340.99로, **주제별 전기 아래**에 모으면 998.34로 분류한다. 전자는 정치학에 전기를 나타내는 표준구분 -099를 적용한 것이고, 후자는 998 아래에서 정치학 주제로 세분한 것이다.

ㄷ. X: 법학 서지를 주제별 서지 및 목록인 016 아래에서 법학 주제로 세분하면 016.36이 된다. 양자택일 규정에 따라 법학 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때 적용하는 표준구분은 서지·목록을 나타내는 -026이므로 **360.16이 아니라 360.26**이 된다.

ㄹ. O: 특정 주제의 신문인 078 아래에서 불교 주제로 세분하면 078.22가 된다. 신문을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하는 양자택일 규정을 적용하면 **불교의 연속간행물**에 해당하는 220.5로 분류할 수 있다.

옳은 보기인 ㄱ·ㄴ·ㄹ을 묶은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KDC 제6판의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80 ‘풍속, 예절, 민속학’의 표목은 ‘풍습, 예절, 민속학’으로 수정되었다.

② 519.82 ‘포제학’의 표목은 ‘약재의 선별, 가공’으로 변경되었다.

③ ‘오락 및 경기 윤리’ 196 아래에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행산업윤리’ 196.5를 신설하였다.

④ 739.66에 전개되었던 ‘라플란드어’를 739.64 ‘핀란드어’에 통합하였고, 792.52의 표목을 ‘범어(梵語)’에서 ‘산스크리트어(범어 梵語)’로 변경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표목 변경의 방향을 거꾸로 설명하였다. 519.82는 제5판의 '약재의 선별, 가공'에서 제6판의 **'포제학'**으로 변경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380의 표목은 제5판의 '풍속, 예절, 민속학'에서 제6판의 **'풍습, 예절, 민속학'**으로 수정되었다. 분류기호 380을 유지하면서 표목의 '풍속'을 '풍습'으로 바꾼 것이다.

② X: 519.82의 표목은 **'약재의 선별, 가공'에서 '포제학'으로** 변경되었다. 포제학은 약재의 선별·가공 등을 다루는 분야로, 제6판에서는 채집법·건조법·저장법·감별법·수치법 등의 세부 항목을 519.82에 통합하였다. 선지는 변경 전후의 표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③ O: 제6판에서는 196 '오락 및 경기 윤리'의 하위에 **196.5 '사행산업윤리'를 신설**하였다. 이 항목은 카지노·경마·경륜·복권 등을 포함하므로, 상위 항목과 신설된 분류기호 및 포함 범위가 모두 일치한다.

④ O: 제5판에서 739.66에 전개되었던 '라플란드어'는 제6판에서 **739.64 '핀란드어'에 통합**되었다. 또한 792.52의 표목은 '범어(梵語)'에서 '산스크리트어(범어 梵語)'로 바뀌었다. 앞부분은 분류 항목의 통합이고, 뒷부분은 같은 분류기호에서의 표목 변경이다.

NoteBase

문 11. 분류표와 분류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류기호는 지식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제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도록 신축성(flexibility)을 가져야 한다.
ㄴ. 십진식 분류법은 기호를 통해 주제의 상하관계를 나타내기가 쉽고, 주제의 논리적 배열도 용이하다.
ㄷ. 열거식 분류표에 비해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는 조기성 도입이 용이하나, 분류표의 부피는 방대해질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십진식 분류법은 주제의 상하관계를 드러내기 쉽지만, **10구분의 제약으로 논리적 배열에 한계**가 있다.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기본 개념을 조합하므로, 모든 주제를 미리 열거하는 방식보다 **분류표의 부피가 작다**.

보기별 해설

ㄱ. O: 신축성은 지식의 발전으로 새 주제가 생겼을 때 **그 주제를 적절한 위치에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거나 세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류기호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

ㄴ. X: 십진식 분류법은 숫자를 단계적으로 세분하므로 기호를 통해 주제의 상하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각 단계를 10개로 구분하는 형식에 맞추어야 하므로, 실제 지식의 구조와 주제 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제의 논리적 배열도 용이하다'는 부분은 **'10구분의 제약으로 주제 배열이 비논리적일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ㄷ. X: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주제를 기본 개념이나 특성인 패싯으로 나누고, 각 기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성한다. 같은 개념에 같은 기호를 일관되게 사용하면 기호를 기억하고 예측하기 쉬워지므로 조기성을 도입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기본 요소와 합성 규칙을 제시하여 여러 주제를 표현하므로, 모든 주제를 미리 나열하는 열거식 분류표보다 **분류표의 부피가 작다**. '부피는 방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합성한 분류기호가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과 분류표 자체의 부피를 구별해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ㄱ만이므로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리재철 저자기호표 제5표이다. 이를 적용하여 작성한 도서기호로 옳은 것은?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초성이 'ㅊ'인 글자	
ㄱ ㄲ	1	ㅏ	2	ㅏ(ㅐ ㅑ ㅒ)	2
ㄴ	19	ㅐ(ㅑ ㅒ)	3	ㅓ(ㅔ ㅕ ㅖ)	3
ㄷ ㄸ	2	ㅓ(ㅔ ㅕ ㅖ)	4	ㅗ(ㅘ ㅙ ㅚ ㅛ)	4
ㄹ	29	ㅗ(ㅘ ㅙ ㅚ ㅛ)	5	ㅜ(ㅝ ㅞ ㅟ ㅠ ㅡ ㅢ)	5
ㅁ	3	ㅜ(ㅝ ㅞ ㅟ ㅠ)	6	ㅣ	6
ㅂ ㅃ	4	ㅡ(ㅢ)	7		
ㅅ ㅆ	5	ㅣ	8		
ㅇ	6				
ㅈ ㅉ	7				
ㅊ	8				
ㅋ	87				
ㅌ	88				
ㅍ	89				
ㅎ	9				

①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 / 이청춘 지음 - 이84우

② 이순신의 생애 / 추윤발 지음 - 이56이

③ 나만의 세계 / 성규리 지음 - 성16나

④ 정치학의 이해 / 잭, 헨리 지음 - 잭94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성규리'의 첫 음절 '성' 뒤에 '규'의 초성 ㄱ과 중성 ㅠ에 해당하는 **1과 6을 차례로 붙인다**. 여기에 서명 '나만의 세계'의 첫 글자 '나'를 붙이면 '성16나'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도서기호는 일반적으로 저자명의 첫 음절에 둘째 음절의 초성·중성을 숫자로 바꾼 기호를 붙이고, 서명을 구별하는 저작기호를 덧붙여 만든다. 제시된 표의 숫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기호와 모음기호 순서로 이어 쓴다.

① X: '이청춘'의 첫 음절은 '이'이고, 둘째 음절 '청'의 초성 ㅊ은 8이다. 초성이 ㅊ이므로 모음기호는 **오른쪽 열**에서 찾아야 하며, ㅓ는 3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은 84가 아니라 83으로 기호화하고, 서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의 '우'를 붙여 '이83우'로 고친다.

② X: '이순신의 생애'는 개인의 전기서이므로 **피전자명인 '이순신'**을 기호화하고 저자의 성을 저작기호로 붙인다. '이'에 '순'의 ㅅ에 해당하는 5와 ㅜ에 해당하는 6을 이어 '이56'으로 만든다. 그 뒤에는 서명의 '이'가 아니라 저자 '추윤발'의 성 '추'를 붙여 '이56추'로 고친다.

③ O: '성규리'의 첫 음절 '성'을 그대로 쓰고, 둘째 음절 '규'를 기호화한다. ㄱ은 1이고, 초성이 ㅊ이 아니므로 왼쪽 모음기호 열에서 ㅠ에 해당하는 6을 찾는다. 따라서 **'성' + '16' + '나'**를 결합한 '성16나'가 된다. 마지막 '나'는 서명 '나만의 세계'의 첫 글자이다.

④ X: 서양인 성이 '잭'처럼 한 음절이면 **성 뒤에 쉼표**를 넣어 이름에서 얻은 숫자기호와 구분해야 한다. '잭, 헨리'는 성 '잭' 다음에 쉼표를 두고 이름을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선지의 '잭94저'에는 이 쉼표가 빠져 있다.

NoteBase

문 13. 주제명목록과 비교할 때, 분류목록(classified catalog)이 갖는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록의 배열이 이론적이고 체계적이다.
ㄴ. 목록에서 관련된 주제가 집중된다.
ㄷ. 다른 목록들과 통합하여 사전체목록으로 편성할 수 있다.
ㄹ. 목록을 배열하거나 이용할 때 언어의 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분류목록은 **분류기호**를 기준으로 배열하므로 주제 간의 체계와 관계가 드러나고, 자연어 표현의 차이에 따른 장벽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문자순 목록과 통합하여 사전체목록을 구성하기 쉬운 것은 **주제명목록**의 특성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분류목록은 자료의 주제를 분류표에 따라 기호로 나타내고 그 기호순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주제명목록은 주제를 나타내는 말인 주제명을 표목으로 삼아 문자순으로 배열한다.

ㄱ. O: 분류목록은 분류표가 정한 주제의 상하관계와 배열 순서를 따른다. 따라서 주제명을 단순히 문자순으로 늘어놓는 것과 달리 **주제의 논리적 관계를 반영한 체계적 배열**이 이루어진다.

ㄴ. O: 분류체계에서 서로 관련된 주제에 인접한 분류기호가 부여되므로, 목록에서도 **관련 주제의 자료를 가까이 모아** 볼 수 있다. 반면 주제명목록에서는 관련된 주제라도 표목의 첫 글자가 다르면 떨어져 배열될 수 있다.

ㄷ. X: 저자명목록·서명목록 등과 통합하여 사전체목록으로 편성하기 쉬운 것은 **문자순으로 배열하는 주제명목록**이다. 사전체목록은 저자명·서명·주제명 등의 표목을 하나의 문자순으로 통합한다. 분류목록은 분류기호순이라는 별도의 배열 기준을 사용하므로 그 배열을 유지한 채 문자순 목록에 통합할 수 없다.

ㄹ. O: 분류기호는 주제를 특정 언어의 낱말 대신 숫자나 문자 등의 기호로 나타낸다. 동일한 분류표를 사용하면 언어별 주제 표현이 달라도 같은 주제의 배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자연어 차이에 따른 장벽을 줄인다**. 다만 분류기호의 의미와 체계를 익힐 필요는 있다.

옳은 보기는 ㄱ·ㄴ·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연속간행물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의 정보원은 창간호를 기준으로 하되, 창간호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수된 첫 호의 정보원에 의한다.

② 간행 중 판표시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저록(레코드)을 작성하고, 변경전후의 판표시는 각각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③ 간행빈도를 나타내는 어구가 표제의 활자와 같은 크기로 표제에 나타나 있으면, 간행빈도를 포함하여 본표제로 기술한다.

④ 축약형과 완전형의 표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형을 본표제로 기술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완전형을 본표제로 기술한다'는 설명은 본표제 선정 기준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KCR4에서는 축약형과 완전형이 함께 있으면 **활자 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본표제를 선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속간행물의 서지사항을 기술할 때는 **창간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간호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입수된 첫 호의 정보원을 사용하므로, 반드시 창간호를 소장해야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O: 간행 도중 판표시가 변경되면 변경된 판에 대해 **새로운 저록을 작성**한다. 변경 전후의 판표시는 각각 주기사항에 기술하여 판표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③ O: 간행빈도는 얼마나 자주 간행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나타내는 어구가 **표제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제에 나타나 있으면 본표제의 일부로 취급하여 함께 기술한다. 간행빈도에 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표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④ X: 축약형과 완전형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형을 일률적으로 본표제로 삼지는 않는다. **활자 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본표제를 선정한다. 따라서 선지의 '완전형을 본표제로 기술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본표제를 기술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종합표제 없이 4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단일 저자의 합집' 표제면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으로 작성했을 때, 245 필드의 기술이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표제면>
위대한 유산
크리스마스 캐럴
두 도시 이야기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지음/이기석 옮김

① 245 ▼a위대한 유산 / ▼d찰스 디킨스 지음 ;▼e이기석 옮김 … [외]
② 245 ▼a위대한 유산 / ▼d찰스 디킨스 지음 ;▼e이기석 옮김. [외]
③ 245 ▼a위대한 유산 … [외] / ▼d찰스 디킨스 지음 ;▼e이기석 옮김
④ 245 ▼a위대한 유산 [외] / ▼d찰스 디킨스 지음 ;▼e이기석 옮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종합표제가 없는 단일 저자의 합집에서 네 작품의 표제를 생략하여 기술할 때는 **첫 번째 표제 바로 뒤에 '[외]'**를 붙인다. 여기에는 생략부호 '…'를 덧붙이지 않으며, 책임표시는 그 뒤에 기술한다.

공통 해설

KCR4에서 종합표제 없이 한 저자의 저작이 4개 이상 수록된 합집의 표제를 생략하여 기술할 때는 첫 번째 저작의 표제를 적고 그 뒤에 '[외]'를 붙인다. '[외]'는 다른 저작의 표제가 더 있음을 나타내므로 **책임표시 뒤가 아니라 표제 뒤**에 둔다. 이때 '[외]' 앞에 생략부호 '…'나 온점을 덧붙이지 않는다.

표제면에는 찰스 디킨스의 네 작품이 열거되어 있고 첫 번째 작품은 '위대한 유산'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럴', '두 도시 이야기', '올리버 트위스트'의 표제를 생략하면 '위대한 유산 [외]'가 된다. KORMARC 245 필드에서는 ▼a에 이 표제를, ▼d에 첫 번째 책임표시인 '찰스 디킨스 지음'을, ▼e에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인 '이기석 옮김'을 기술한다. 지음과 옮김은 역할이 다르므로 두 책임표시 사이에는 쌍반점(;)을 쓴다. 전체 기술은 '245 ▼a위대한 유산 [외] / ▼d찰스 디킨스 지음 ;▼e이기석 옮김'이다.

NoteBase

문 16. KDC 제6판과 DDC 제23판의 분류번호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① KDC 320 - DDC 340

② KDC 510 - DDC 630

③ KDC 740 - DDC 420

④ KDC 860 - DDC 83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KDC 740과 DDC 420은 모두 **영어**를 나타낸다. 분류체계가 다르면 같은 주제에도 서로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KDC 제6판과 DDC 제23판의 번호는 각 분류표에서 나타내는 주제로 대조한다. 같은 숫자인지보다 각 번호가 어느 학문이나 언어·문학을 가리키는지가 기준이다.

① X: KDC 320은 **경제학**이고, DDC 340은 **법학**이므로 서로 다른 주제이다. 경제학으로 연결하려면 KDC 320과 DDC 330을 짝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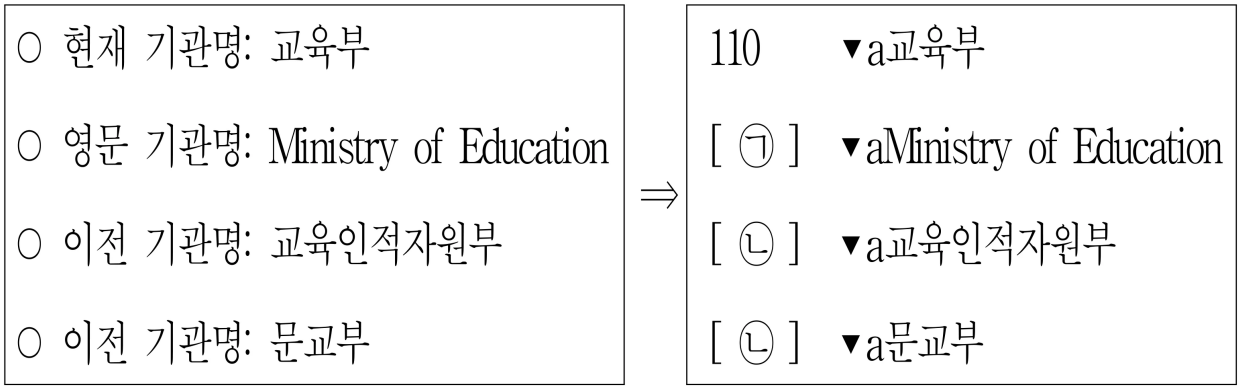
② X: KDC 510은 **의학**이고, DDC 630은 **농업**이므로 서로 다른 주제이다. 의학으로 연결하려면 KDC 510과 DDC 610을 짝지어야 한다.

③ O: KDC 740은 영어이고, DDC 420은 영어와 고대영어를 다루는 분류이다. 두 번호는 모두 **영어에 관한 자료**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므로 주제가 대응한다.

④ X: KDC 860은 **프랑스문학**이고, DDC 830은 **독일문학 및 관련 문학**이므로 서로 다른 주제이다.
프랑스문학으로 연결하려면 KDC 860과 DDC 840을 짝지어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의 전거레코드 작성 예시이다. ㉠과 ㉡에 들어갈 표시기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① ㉠: 410 ㉡: 610
② ㉠: 410 ㉡: 510
③ ㉠: 610 ㉡: 710
④ ㉠: 510 ㉡: 71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Ministry of Education'은 채택된 명칭 '교육부'의 다른 언어 표현이므로 **보라부출(410)**로 기록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교부'는 이전 명칭과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도보라부출(510)**로 기록한다.

빈칸별 해설

제시된 레코드는 현재 기관명 '교육부'를 110 필드에 채택표목으로 기록하고, 다른 언어로 된 명칭과 이전 명칭을 각각 참조로 연결한다. 구분 기준은 명칭이 영어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채택표목과 어떤 관계인지이다.

㉠ 410: 'Ministry of Education'은 같은 기관의 영문 명칭이다. 이 예시에서는 '교육부'를 채택표목으로 삼았으므로 영문 명칭은 **비채택 명칭에서 채택 명칭으로 안내하는 보라참조**의 대상이다. 단체명의 보라부출 표시기호는 410이다.

㉡ 510: '교육인적자원부'와 '문교부'는 제시된 이전 기관명이다. 이름이 바뀐 전후의 명칭은 단순한 언어별 표현 차이와 구별하여 **서로 관련된 채택표목 사이를 연결하는 도보라참조**로 처리한다. 단체명의 도보라부출 표시기호는 510이므로 두 이전 기관명에 모두 적용한다.

㉠에 410, ㉡에 510을 넣는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KDC 제6판 본표와 보조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전라도 요리'를 분류한 기호로 옳은 것은?

	594.5 요리(조리법) Cookery 특정음식점의 요리비결법에 관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 .51 한국요리 Korean cookery .519 한국지역 요리 지역구분표 -11에 따라 세분한다.
지역 구분표	-119 전라도

① 594.5119
② 594.51119
③ 594.5199
④ 594.519119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국지역 요리의 기호 594.519에 전라도의 지역 세분기호를 붙인다. '지역구분표 -11에 따라 세분한다'는 지시이므로 -119 전체가 아니라 **-11 다음의 9만** 붙여 594.5199로 구성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본표 기호: 전라도 요리는 한국의 특정 지역 요리이므로 **594.519 '한국지역 요리'**에서 출발한다. 제시된 .51과 .519는 앞의 594를 생략한 표기이므로 각각 594.51과 594.519를 뜻한다. 한국요리 일반의 기호 594.51에 바로 지역기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지역 세분기호: 594.519 아래에는 '지역구분표 -11에 따라 세분한다'는 지시가 있다. 전라도의 지역기호 -119에서 공통 부분인 -11을 제외하고 **그 뒤의 9만** 가져와 붙인다. -119의 하이픈은 보조표 기호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완성된 분류기호에는 넣지 않는다.

기호 구성: 594.519 뒤에 9를 이어 붙이면 594.5199가 되며, 이는 ③의 기호와 일치한다. 이는 수의 덧셈이 아니라 **분류기호의 결합**이다. 594.519 뒤에 119 전체를 붙인 594.519119는 -11까지 중복해서 붙인 것이다.

NoteBase

문 19.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의 총서에 대한 기술총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서의 권차를 표현한 단위어는 그 자료에 표시된 문자와 용어 그대로 기재하되, 가급적 약어화한다.

② 총서 중에서 수 개를 차지하는 저작으로 그 권호가 띄엄 번호일 경우, 해당번호 중 최초의 번호와 최후의 번호를 '짧은 붙임표(-)'로 연결하여 기술한다.

③ 하위총서가 편, 계, 보유 성격의 차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하위총서 표제 앞에 이를 기술한다.

④ 하위총서의 대등표제, 표제관련정보, 책임표시에 대해서는 그의 기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식별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총서의 기술방법에 준하여 기술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총서의 권호가 **띄엄번호**이면 해당 번호를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는다. 최초 번호와 최후 번호를 짧은 붙임표(-)로 연결하는 방식은 권호가 연속될 때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총서의 권차를 나타내는 단위어는 **자료에 표시된 문자와 용어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약어로 적는다. 단위어를 임의로 다른 언어의 용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어의 약어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② X: 총서 중 여러 권호를 차지하는 저작의 번호가 불연속적이면 **해당 번호를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기술**한다. 예를 들어 1·3·5번에 해당하면 '1, 3, 5'로 적는다. '1-5'처럼 최초와 최후 번호만 연결하면 그 사이 번호도 모두 포함하는 연속 범위를 뜻하므로, 띄엄번호를 나타낼 수 없다. 짧은 붙임표(-)로 최초와 최후 번호를 연결하는 방식은 연속번호에 적용한다.

③ O: 하위총서는 본총서 아래에 속하는 세부 총서이다. 하위총서에 편·계·보유 성격의 차서가 있으면 **차서를 하위총서 표제 앞에** 적어 그 구분과 순서를 드러낸다. 하위총서의 표제만 적으면서 해당 차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④ O: 하위총서의 대등표제·표제관련정보·책임표시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식별상 필요하면 기술**한다. 이때는 본총서에 해당 정보를 적는 방법에 준한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언제나 생략하거나 언제나 모두 적는 규칙이 아니라, 하위총서 식별에 필요한지에 따라 기재 여부를 달리한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연관저록 표시기호의 사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ㄱ. 번역서와 원저 관계
245 00▼a인간의 굴레 / ▼d서머셋 모음
765 0 ▼aMaugham, William Somerset. ▼tOf human bondage, ▼z0877790105
ㄴ. 저작의 보유판 또는 특별호 관계
245 00▼a신동아
772 0 ▼t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 ▼z97911879680XX
ㄷ. 물리적 형태가 다른 저작 관계
245 00▼aCollege English▼h[microform]
776 1 ▼tCollege English▼x0010-0994
ㄹ. 해당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선행자료 관계
245 00▼a문헌정보학개론 / ▼d정필모
780 02▼t도서관학개론

① ㄱ의 765필드
② ㄴ의 772필드
③ ㄷ의 776필드
④ ㄹ의 780필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ㄴ은 '신동아'의 레코드에 그 보유판 또는 특별호를 연결하므로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을 써야 한다. 772는 반대로 **보유판·특별호의 레코드에서 모체자료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의 765는 원저저록으로, 번역서의 레코드에 **번역의 바탕이 된 원저**의 정보를 기술한다. '인간의 굴레'의 레코드에서 원저 'Of human bondage'를 연결하므로 765의 사용이 적절하다.

② X: ㄴ의 245에 기록된 자료는 모체자료인 '신동아'이고, 연결하려는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은 그 보유판 또는 특별호이다. 따라서 772를 **770(보유판 및 특별호 저록)**으로 고쳐야 한다. 772(모체레코드저록)는 보유판·특별호의 레코드에서 모체자료를 기술할 때 쓴다. 이 사례에서 772를 쓰려면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의 레코드에 모체자료인 '신동아'를 연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③ O: ㄷ의 776은 기타형태저록으로, 해당 자료가 **다른 물리적 형태**로도 간행된 경우 그 자료를 연결한다. 245의 '[microform]'은 마이크로자료임을 나타내며, 같은 'College English'의 다른 물리적 형태를 연결하므로 776의 사용이 적절하다.

④ O: ㄹ의 780은 선행저록으로, 현재 기술하는 자료와 직접 관련된 **선행자료의 정보**를 기록한다. '문헌정보학개론'의 레코드에서 선행자료인 '도서관학개론'을 연결하므로 780의 사용이 적절하다.

NoteBase